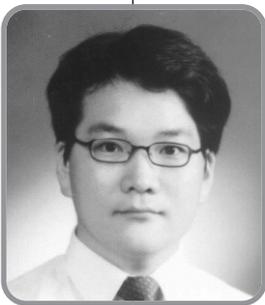


“국내 광학산업 발전에 ‘광학세계’의 역할 중요해”



서울정광
해외영업부 대리
최성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정광에서 해외영업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민입니다.

저희 회사를 잠깐 소개 드린다면, 서울정광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Silicon Wafer상에 진공 증착을 해서 PIR sensor용으로 사용되는 LWP(long wavelength pass) filter를 제작하여 싱가포르 및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광학에서도 적외선, 특히 5 μ m 이상의 Far IR를 다루는 광학코팅 회사는 전 세계를 뒤져봐도 다섯 손가락 안에 다 들어올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현재 서울정광에선 8 μ m에서 14 μ m까지의 wide band pass filter 및 half band width가 0.18 μ m 밖에 되지 않는 4.26 μ m에서의 Gas analysis용 filter 등을 개발 완료하여 GE 계열사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광학이란 학문이 아직까지는 기초단계에 있는 듯 합니다. 물론 많은 광학회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 회사에서 관련 제품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기초 학문 자체가 미약한 듯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독일, 일본, 미국을 제외하고는 광학관련 논문이나 서적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광학세계’라는 잡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광학’이란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디딘 곳은 (주)메틴이란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해외영업을 맡아서 일했습니다. 그때부터 광학세계를 접했으니깐 벌써 횡수로만 만 5년이 넘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광학기기협회를 통해 전시회도 많이 다니고 광학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광학산업 정보를 접하면서 국내 광학산업이 많은 발전을 해 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추격이 매우 무서워졌습니다. 서울정광도 많은 광학관련 부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중국의 많은 광학관련 업체들이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공이나 원자재관련 분야에서는 그들의 품질과 기술력도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ade-in-china.com’에 가보시면 아마 실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독특한 기술을 가지는 길 밖에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많은 광학관련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자신만의 기술을 갖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학세계의 역할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광학세계가 그동안 우리나라 광학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인정하며 크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는 광학기술 동향에 대해 많이 다뤄주시고 국내 광학인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점차 첨단으로 치닫는 우리의 기술도 많이 다뤄주셔서 우리 광학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게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